제6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9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8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주제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기타 논문이다.

2. 인물별(주제별) 분류

1)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논문(8편)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남옥	정제두와 서인-노론계의 학술 교유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전성건	하곡의 양지론과 다산의 영지론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천병돈	중기하곡학파의 학술사상 연구-宛丘, 信齋, 石泉을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4	김재화	심대윤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 연구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5	한정길	蘭谷 李建芳의 「朝鮮儒學과 王陽明」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6	김윤경	근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토대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7	김세정 조지선	강화양명학 국제학술대회 분석을 통해본 하곡학 연구 현황과 전망	충남대유학연구소	유학연구
8	김용재	한국양명학 연구의 諸문제-'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	충남대유학연구소	유학연구

19년도 한국 양명학 관련 논문 18편중에서 정제두(강화학파) 논문이 8편이다. 18년도 전체 19편 중에서 11편과 비교하면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정제두(강화학파) 관련된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1) 이남옥의 「정제두와 서인-노론계의 학술 교유」는 기존 연구사의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제두 학술사상을 남계 박세채를 위시한 서인 소론계의 틀 안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자학을 반대한 양명학이라고 할 때, 조선시대 주자학 수호자로 자처한 노론을 염두에 둔다면 소론에서 정제두 양명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남옥은 이렇게 주장한다. “정제두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소론화 경향성을 띄기는 하지만 그의 교유관계 속에서 여전히 서인-노론계와의 관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술 교유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제두를 ‘양명학을 연구한 소론 학자’의 틀에 가두기보다는 ‘당파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적 활동을 영위한 학자’로 재평가해야 하겠다.” 참신한 주장이다.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다면 학술사적 함의가 상당하다.

이남옥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본고에서는 정제두가 1667년부터 1732년까지 약 66년간 58명 이상의 사람에게 보낸 267건의 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제두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론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후반까지 계속해서 서인-노론계와 10%대의 교유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당색은 다르지만 민진주·서한주·이희조와 같이 인척관계이거나 이징명·정찬휘·김간과 같이 학맥으로 연결되는 특수 관계에 속한 인물들과 교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제두와 교유한 서인-노론계는 송시열·서한주·민정중·김수항·민유중·민진주·김간·이징명·정찬휘·이희조·민진원 11명이다. 이들은 송시열의 문인이거나 종유한 인물로 송시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제두와 이들의 관계는 크게는 학문적 정치적 동질성을 지닌 서인이라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작게는 송시열을 동일 스승으로 하는 일종의 학맥으로 볼 수 있다. 정제두는 이징명과의 관계 속에서 초기 학문 방법을 수정하였고, 김간·정찬휘와의 관계 속에서 양명학 논변을 진행하였다. 정제두와 김간·정찬휘의 양명학 논변은 그동안 정제두를 중심으로 한 양명학 논변이 박세채 문하 혹은 소론 내부의 문제로 연구된 것에서 벗어나, 노소분기 이후 서인-노론계에서

정제두를 양명학자로 비판한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사 입장은 정제두가 노론 학자와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편지글 편수를 근거로 10%대 교유관계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하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성찰의 계기는 제공한다. 정제두와 소론계의 인적 연관성은 높다. 정제두 학술 연원을 고려했을 때에도 소론계와 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계와의 학술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남옥의 주장은 도식화된 이해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시 이 사고를 확대하면, 정제두가 소론계와 교류를 했느냐 노론계와 교류를 했느냐 하는 구분은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명학자인 정제두에게 소론계와 노론계 모두 주자학이기 때문이다.

⑵ 전성건의 「하곡의 양지론과 다산의 영지론」은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다. 물론 전제가 필요하다. 다산학 전공자인 전성건이 주자학의 성(性)과 양명학의 양지(良知)의 동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성건은 자신이 이해하는 하곡의 양지를 말한다. "하곡은 주희의 격물치지에 대해 물리를 탐구하여 지식을 극대화하는 것은 근본 학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양지를 완성한다는 의미의 치양지를 제시하고, 지행합일의 실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이는 이른바 선천적인 양지를 확보하여 도덕적 실행의 직접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양지는 하곡에게 이른바 진체로서의 생리라고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나 하곡 양지학의 핵심을 확실히 잡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하곡의 양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

자학을 반대편에 두고서 하곡의 양지와 다산의 영지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더욱 요청된다.

⑶ 천병돈의 「중기하곡학파의 학술사상 연구-宛丘, 信齋, 石泉을 중심으로-」는 하곡학파를 다룬 논문이다. 논자는 근년 하곡학파 관련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우선 논문 제목에서 중기하곡학파라는 말이 눈에 띈다. 중기하곡학파라는 표현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천병돈의 말을 들어보자. "하곡학파란 하곡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 학인들을 말한다. 중기하곡학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인으로 완구 신재 석천이 있다. …… 학문과 사상의 계승이라는 좁은 의미의 학파 관점에서 중기하곡학파인을 하곡학파로 규정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럽다 그러나 중기하곡학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즉 하곡학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기하곡학파를 모호한 하곡학이라고 규정해도 될 것 같다." 논자가 비록 중기하곡학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본 논문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명칭의 적합성 여부, 해당 학자군의 타당성 여부를 논자 스스로도 전긍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호한 하곡학'이라는 개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본 논문의 존립 가능성이 위태로워 보인다.

⑷ 김재화의 「심대윤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 연구」는 주목할 만한 주제다. 심대윤(沈大允, 1806-1872)은 매년 장병한이 발표해 왔는데, 정인보가 "근세의 학자로서 이익과 안정복은 역사학으로 빼어났고, 정약용은 정치학으로 뛰어났다. 그러나 심대윤은 적막한 가운데 외

롭게 지켜, 명성이 파묻히게 되었다. …… 그러나 공정하게 논평하건대 정밀한 뜻과 빼어난 해석이 여러 학설 가운데에서 빼어났으니 삼한(三韓·조선) 경학의 밝은 빛이라 하겠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밝혀두었듯 경학 연구에서 독자의 경지를 구축한 학자다. 그의 학문관은 가학과도 상관성이 있는데, 그의 증조부의 형이었던 심육(沈鋿)이 정제두의 수제자였다.

김재화의 말을 들어보자. "심대윤은 성인이 자신이 격물치지를 통해 안 바를 천하의 뭇 사람들 또한 쉽게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실천의 묘리로서 대중들에게 충서(忠恕)를 힘써 행할 것을 가르쳤다고 주장하며, 격물치지와 충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로워지고〔利〕 편안해지는〔安〕 위대한 유학의 도(道)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심대윤의 격물치지 개념은, 대중들로부터 유학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민란과 탄압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19세기에 살았던 심대윤의 시대적 문제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5) 한정길의 「蘭谷 李建芳의 「朝鮮儒學과 王陽明」은 중요한 사료 발견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정길이 전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난곡(蘭谷) 이건방(李建芳, 1861-1939)은 양명학자다. 그가 양명학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그의 제자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언급을 통해서이다. …… 그러나 정인보는 그의 선생인 이건방의 양명학 이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건방의 주저인 『난곡존고(蘭谷存稿)』에도 양명학에 관한 이건방의 직접적인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건방의 양명학에 관한 연구도 『난곡존고』에 나오는 몇 구절을 가지고 천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건방은 양명학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남기고 있다. 바로 「조선유학(朝鮮儒學)과 왕양명(王陽明)」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동아일보》에 1933년 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길성산인(吉星山人)이라는 이름으로 8회에 걸쳐 연재된 바 있다. 지금까지 이 글의 작자인 길성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선유학과 왕양명」이라는 글도 작자 미상의 글로 간주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 이 기사에서 주목할 것은 이건방이 난곡유고이외에도 「조선유학과 왕양명」이라는 글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조선유학과 왕양명」이라는 글은 이건방이 길성산인이라는 필명으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양명학 연구사에서 고전적 저작인 『양명학연론』은 정인보가 〈동아일보〉에 1933년 9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발표한 글을 엮은 것이다. 이에 앞서 이건방이 길성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8회에 걸쳐 「조선유학(朝鮮儒學)과 왕양명(王陽明)」을 발표했다. 스승이 길을 트고 제자가 길을 닦은 셈이다. 양명학의 대로를.

⑹ 근년 한국 양명학 관련 다수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는 연구자인 김윤경은 「근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토대」에서 정인보의 조선학을 다시 한 번 섭렵한다. 김윤경의 결론이다. "정인보의 조선학은 자신의 가학과 함께, 서구문물에 추종하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 국학 풍토의 배경아래 형성된 것이다. 가장 먼저 일본문화에서 일본정신을 찾고 그것의 근원성과 우월성을 찾으려했던 일본 국수주의와 국학이 형성되었고 중국도 이에 영향을 받아 국수주의와 국학이 발달했다. 정인보가 학문적으로 인정

한 중국의 대표적인 국학자 장병린은 불교에 기반 하여 절대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의 광복을 추구하였다. 그의 국학은 주체의 확립을 목표로 하지만 배타적인 특징이 있다. 정인보는 장병린의 박학과 문장을 극찬했지만 사상을 계승하지는 않았다. 조선의 국학 방면에서는 대종교를 수용한 신채호와 박은식의 영향을 받았다. 정인보도 대종교 활동을 했으나 단군시조의 사상과 문화적 뿌리에 대해 종교성은 탈각시키고 학문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다. 정인보 조선학은 최남선처럼 타문화와 비교해서 조선적인 고유한 것을 찾고 그것의 보편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중심의 주체적 조선학'의 수립에 있었다." 주체적 조선학이라는 개괄은 다소 모호한 느낌이 들지만 정인보 조선학의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다.

(7) 김세정·조지선의 「강화양명학 국제학술대회 분석을 통해본 하곡학 연구 현황과 전망」은 한국학계의 양명학 연구 현황을 개괄한다. 국내외 양명학 연구 성과를 선도적으로 정리해온 논자는 본 논문에서 기존 논자의 성과물을 다시 한 번 개괄한다. 논자의 말을 들어보자.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선시대의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연구 성과 또한 풍부해진다. …… 이러한 양명학에 대한 관심과 전공자들의 증가 및 학술성과들에 힘입어 뜻있는 학자들이 100여명이 모여 1995년 4월 8일 한국양명학회를 창립한다. 한국양명학회는 지난 24년간 양명학을 주제로 한 50여 차례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는 물론 53권의 학회지 『陽明學』을 발간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함과 동시에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에 있어 1990

년대 한국양명학의 창립과 더불어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2004년도에 시작된 '강화양명학 국제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양명학회'는 2004년부터 강화군청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강화양명학 국제학술대회'를 주최 주관함으로써 지난 15년간 하곡학과 관련한 발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⑻ 김용재의 「한국양명학 연구의 諸문제-'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는 김세정·조지선의 「강화양명학 국제학술대회 분석을 통해본 하곡학 연구 현황과 전망」처럼 양명학 연구를 개괄한다. 본 논문은 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했다. 김용재는 이렇게 말한다. "그간 한국양명학은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적으로 팽창한 만큼이나, 질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5년, 한국양명학회 창립 이후, 한국양명학 연구는 ①조선에 양명학이 유입되는 시기, ②한국양명학의 특징 또는 정체성 찾기, ③하곡 정제두의 사상 또는 그 주변의 자료 탐색, ④강화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양명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외의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거론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것은 한국양명학 연구가 그만큼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필자는 '하곡학'이나 '강화양명학'에 대한 연구로부터 벗어나, '포스트-하곡학'과 '포스트-강화양명학'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거론하였다. 이것은 한국양명학을 연구함에 있어 그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고에서는 성호학파 가운데 '성호좌파'의 유자들이 양명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는 양명학과 서학은 어떠

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언해보았다. 이외에도, 과거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가 지지부진했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물론 이 부분은 한국양명학 연구의 자료, 전거(典據)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제시함) 등,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나열해 보았다."

2)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7편)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황갑연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원인 주자학의 전개 양상 그리고 양명학에 대한 오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2	김민재	양명학의 전래 초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비판적 인식 검토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김희영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1)-'尹根壽'와 '陸光祖' 간의 「朱陸論難」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4	전수연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2)-柳希春과 柳成龍을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5	함영대	성호학파와 양명학의 접점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6	김윤경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7	김윤경	오촌 설태희의 실용주의와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9년도 한국양명학 연구 논문 중 특색을 꼽자면 양명학과 성리학 비교적 시각을 견지한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총 7편 중에서 3편은 조선성리학과 양명학 상관성을 논하는 학술연구재단 과제 수행논문이다.

(1) 황갑연은 한국양명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거니와 송명이학 전공자로서 주자학과 성리학의 동이 문제를 천착하며 연구한 학자다. 본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원인 주자학의 전개 양상 그리고 양명학에 대한 오해」 논문은 논자의 기존 입장들을 재확인하는 글이다. 특히 본 논문은 조선성리학의 독자성을 해명하는 작업과 연동된다. 논자의 말을 들어보자. "이 논문은 중국과 한국에서 주자학의 전개 양상 차이, 그리고 조선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오해와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조선성리학이 분명 주자학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선성리학이 중국 주자학의 아류인가?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학술 범주를 주자학으로만 국한시켜 본다면 중국보다도 더욱 치밀하고 섬세하였으며, 학술 주제 역시 다채로웠다."

그렇다면 조선성리학의 독자성은 어디에서 확보될 수 있는가? 논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중국에서 주자의 성리학은 주자에 의하여 리기론과 심성론 그리고 공부론까지, 모든 방면에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자 사후 주자 성리학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학술의 기본 체계를 전환하는 새로운 성리학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 주자학 존숭 방법과 실천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조선성리학은 중국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즉 조선성리학의 논변과 전개 양상은 도덕행위론과 심성론을 리기라는 형이상학 개념으로 환원시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조선성리학이 왜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원인을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필자는 불교와의 차별화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수입된 주자학 문헌의 구성과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연원 고찰 측면에서 논

하자면 고려시대 수입한 주자학은 원대유학이라는 점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된다. 논자의 본 논문 역시 유사한 틀을 보여준다.

⑵ 김민재의 「양명학의 전래 초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비판적 인식 검토-김세필과 이황의 양명학 비판을 중심으로」, ⑶김희영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⑴-'尹根壽'와 '陸光祖' 간의 「朱陸論難」을 중심으로-」, ⑷전수연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⑵-柳希春과 柳成龍을 중심으로-」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수행 성과물이다.

김민재의 논문은 무엇을 다룬 것인가? 논자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①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습록』의 유입 과정과 김세필의 양명학 비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초간본 『전습록』의 최초 유입자는 김세필 본인이거나 그가 속해 있던 사신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김세필이 박상과 주고받았던 우화눌재는 다양한 번역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양명학 변척시라고 주장하였다. ②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전습록논변」에 인용된 『전습록』의 구절들을 언급하고, 이황의 양명학 비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이황이 양명학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였다고 보았고, 그가 이러한 부분적 이해에 기초해 양명학을 비판하거나 육구연의 사상을 선학으로 규정한 뒤 관련 계통의 마지막에 왕수인을 위치시켜 비난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김희영의 논문은 이렇다. "조선의 학자 윤근수(尹根壽, 1537-1616)와 명나라의 육광조(陸光祖, 1521-1597)가 만나 논변을 하고 이를 저술하여 남긴 「朱陸論難」을 연구 텍스트로 선정하고, 이를 도통관, 심성관, 학문관으로 나누어 둘의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주륙

논란」을 통하여 윤근수의 양명학 비판 내용과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양명학이 유입된 초기에 이황(李滉)이 양명학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비교적 단순한 비판 양상을 보인 것에 비해, 윤근수는 천리적 용어인 '치양지'를 언급하고, 인심과 도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만큼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수연의 논문은 이렇다. "이 글에서 논자들은 '양명학 이해 심화' 시기의 학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 유희춘과 류성룡의 양명학 비판 양상에 대해 『미암집』의 「경연일기」와 『서애집』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유희춘과 류성룡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양명학 이해 심화' 시기에서 '반양명학 분위기 강화' 시기로 이행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의 양명학 비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검토 과정임을 보여준다."

김민지, 김희영, 전수연의 논문은 그들이 밝히고 있듯이, 주자학을 학문의 종지로 삼았던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남긴 양명학 비판 문헌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양명학 비판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통사적인 연구는 향후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함영대의 「성호학파와 양명학의 접점」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 무슨 말인가? 함영대의 말을 들어보자. "성호학파의 양명학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그 핵심 논점은 주자학을 비판했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양명학을 신봉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주요한 연구의 결론도 성호학파 가운데 좌파를 중심으로 양명학 수용의 흔적을 나타내는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그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단편적이므로 자료의 발굴이 한층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성호학파와 양명학파의 직접적인 연관 고리를 무리하게 찾기보다는 성호학파의 내적 분위기 가운데 양명학과 조응할 수 있는 점이 없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벽이단론이나 심신관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 그 논의를 진행하는 사고의 방향이 양명학의 견해와 조응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호학파에서 양명학을 수용할 수 있는 맥락과 접점의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이상의 방법론을 구사하여 조사한 도달한 결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결과 벽이단론을 중심으로 성호학파가 양명학을 수용할 수 있는 학파내적 분위기와 논리적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정산 이병휴에 의해 가장 극적으로 제출되는 심신의 통일적인 이해는 천지만물을 한'몸'으로 삼을 것을 강조한 양명의 주장과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성호학파의 심신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양명학의 세계인식과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 개인의 수양에 있어 심신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정산에 의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 성호학파와 양명학은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⑹ 김윤경의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전우, 곽종석을 중심으로-」는 양명학의 전유물로 평가되어

온 실심실학이라는 개념어 성찰을 요청한다. 김윤경의 주장이다. "조선 양명학파를 대표하는 하곡학파(霞谷學派)의 특징으로 거론되어온 '실심실학'은 하곡학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특히 근대전환기에는 서구문물과 제국주의의 국권침탈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유교 지식인의 대응으로서 실심실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재해석과 실천이 활발하였다.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정인보 등 하곡학파는 진실성의 기초 위에 주체성을 더 강조한 실심실학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실심실학은 곧 '실심을 실행하는 실학'을 의미했다. 따라서 실학은 진실된 마음인 실심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실심의 한결같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일진무가(一眞無假)〕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면 실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정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곽종석, 전우와 같은 주자학자는 전통학문의 본질과 보편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진실성에 기초한 성리학의 완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실심실학'은 '실심(實心)으로 실학(實學)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실심은 실학하는 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실심을 기준으로 삼는 하곡학파의 견해와 다르다. 근대전환기 양명학적 실심실학은 주체의 확립을 지향한 반면 주자학적 실심실학은 보편의 확립을 지향했다. '실심실학'에 대한 다른 함의는 실천론과 실천 양상의 차이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김윤경의 「오촌 설태희의 실용주의와 양명학」은 국내 학계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인물을 다루고 있다. 김윤경의 지적처럼 20세기 한국에서 양명학에 주목했던 지식인들은 본래 하곡학을 계승해 왔던 부류와 메이지유신으로 나타난 일본 양명학의 성과에 착안해 유교개

혁을 추구했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지식인으로는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정인보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지식인으로는 최남선과 박은식 그리고 설태희를 들 수 있다. 설태희(薛泰熙, 1875-1940)는 호가 오촌(梧寸)이고 자는 국향(國鄕)이다. 사회운동가, 유학자, 한학자이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하여 명치대학 법학부를 유학했다.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를 조직하고 애국계몽운동 및 물산장려운동 활동을 펼쳤다.

김윤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설태희는 정주성리학을 허학으로 규정하고 실용정신과 도덕실천주의에 입각한 유학의 본령을 되살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을 포함한 서구 철학사상을 접하면서도 이에 경도되지 않고 당대 실정에 맞는 실천방안과 철학적 대안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대의 공맹유학과 이를 계승한 양명학이었다. 그가 인지하고 수용한 양명학은 그의 학맥과 무관한 독학의 결과였다. 물론 당시 동아시아 전통지식인의 개혁적인 사유가 양명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주정신과 실용정신을 유학의 본령으로 놓고 실질적 교학을 바탕으로 전통학문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했다. 그는 일본 양명학의 성과에 매몰되어 양명학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사상인 격물치지론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 했으며 사구교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설태희의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유교의 본령인 실용실학에 있었다. 그의 실용주의는 경제적 유리나 이권을 목표로 하는 공리적 실용주의가 아니라 도덕적 활용에 중심을 두는 도덕적 실용주의였다. 또 이에 기반한 실천론은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민족생존권 보장과 대동사회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 되었다. 실천으로 일관된 그의 실용주의 사상은 도덕과 생활 안정을 대립적 구도로 보는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태희가 양명학을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 『양명학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2020년 2월에 전자책으로 출간되었다.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설태희의 양명학 이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타(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선희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김용재	韓·日 陽明學 비교연구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방향성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3	김세정	현대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의 신지평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⑴ 김선희의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16세기 중국과 18세기 조선을 중심으로-」은 서학, 특히 천주교와 양명학의 친연성을 연구했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존 연구사에서 천주교와 양명학의 친연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친연성이 확인되는데, 그 친연성의 접점은 무엇인가? 김선희의 논문은 이 지점을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다루겠다.

⑵ 김용재의 「韓·日 陽明學 비교연구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방향성」은 논자가 밝히고 있듯이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연구과제의 도론 부분의 〈연구계획〉 일부분을 확대 정리한 글이다. 2019년도에 발표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양명학 비판 연구들은 본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다.

⑶ 김세정의 「현대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의 신지평」은 현재 한국양명학회 회장이자,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양명학 연구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논자의 학술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이다. 먼저 김세정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지형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비교철학의 관점에서의 양명학 연구, ②오늘날의 생명 문제와 연관지어 생명철학·환경윤리·생태철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입장, ③교육철학 및 교육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재조명 하면서 교육 분야에서의 양명학의 현대적 역할을 모색하는 입장, ④양명학을 철학상담, 심리학, 치유학과 연결 지으면서 양명학에 대한 현대적 적용을 모색하는 입장, ⑤예술과 체육학 분야에서의 양명학에 대한 연구, ⑥여성주의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한 양명학 연구이다."

이어서 김세정은 향후 과제를 아울러 제시한다. "현대한국양명학은 아직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첫째, 분야별 연구들이 보다 심화되고 하나의 결실로 엮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연구 주제와 내용들이 양명학 연구자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나라의 양명학 연구와의 비교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명학은 이제 대중운동, 문화운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현대 한국양명학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유학의 종교성은 많이 연구되는 주제다. 마테오 리치는 선진유학에서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성을 찾았다. 한 발 더 나아가 송명이학의 종교성을 논한다면, 주자학이 천주교(기독교)와 친연성이 높은가? 양명학이 천주교(기독교)와 친연성이 높은가? 하고 물을 수 있다. 초월자인 야훼 하나님은 주자학에서, 성령 하나님은 양명학에서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다. 주자학과 양명학에서 모두 종교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역사적 전개 과정을 반추해 보면, 양명학이 천주교(기독교)와 친연성이 높다고 할 만하다. 16세기 중국에서 일어난 마테오 리치의 포교 활동이나, 18세기 조선에서 발생한 성호학파 내의 신서파 활동이 예증이다.

김선희의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16세기 중국과 18세기 조선을 중심으로-」은 16세기 중국과 18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조망하며 천주교와 양명학의 친연성을 연구했다. 중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마테오 리치의 시대에 양명학은 서학을 중국 사회와 문화에 도입하는 일종의 창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양명학자들의 유학 이론에 대한 개방적 해석과 실용적 지식에 대한 추구는 예수회원들의 전교 과정에서 모종의 공통 분모를 형성했던 것이다." 한다. 조선의 경우에 대해서는 "성호의 문하에서 자득지학(自得之學)의 학문적 태도를 배웠던 권철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양명학으로, 더 나아가 서학-천주학에 나아갔다. 적어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서학이 가진 이론적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게 서학은 단순히 '이학(異學)'이 아니라 '신학(新學)'이었던 것이다. ……그가 양명학 때문

에 서학-천주학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명학으로 향했던 그 지적 태도의 일환으로 서학-천주학에도 접근했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김선희가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존 연구사에서 천주교와 양명학의 친연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친연성의 접점은 무엇인가?

김선희는 제4장의 '조선 호교서와 양명학'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서술을 전개한다. "'영명(靈明)'은 원래 양명학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허령명각의 줄임말로 성리학적 맥락에서도 사용되지만, 그 용례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영명'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쪽은 양명학이었다. 이는 인심에 내재하는 우주와 합일하는 지혜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 천도를 의미한다. ……예수회원들은 '영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혼'의 특성을 설명한다. 생장과 영양을 주관하는 식물혼, 운동과 감각을 주관하는 동물혼 뿐 아니라 인간은 영명한 이성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서학을 통해 '영명' 이라는 개념을 인간 이해의 새로운 규정으로 삼은 것은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는 '영명(靈明)', '영명지체(靈明之體)' '영명지심(靈明之心)' 같은 개념을 통해 지성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선택이 가능한 인간의 구조를 새롭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근원이자 도덕적 감시자로서 상제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명'에서 이성적 능력 뿐 아니라 근원자에 대한 신앙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예수회원들이 전략을 양명학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선희는 양명학의 양지와 천주교의 성령을 접점으로 제시한다. 이

는 김선희를 포함하여 천주교(기독교)와 양명학을 아는 연구자라면 당연히 주목하는 대목이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다만 성령 이해가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양지의 이해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잘못하면 자료의 정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 19년도 18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양명학 연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19년도에 전체 편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19년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한정길의 「蘭谷 李建芳의 '朝鮮儒學과 王陽明'」을 우선 추천한다. 문헌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김선희의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16세기 중국과 18세기 조선을 중심으로-」 또한 미덕을 갖춘 논문이다. 축척된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표현이 정제되어 있다.